

## 우리나라 모유수유 교육 및 지원 실태

김지은(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모유수유 교육실태와 모유수유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하여 알아내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국 24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모자보건 담당자나 임신부 교실 담당자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10부였다. 설문지에는 보건소의 구성인원, 모유수유 교육여부,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 담당자, 교육횟수, 교육도구, 교육내용, 출산 후 모유수유 상담여부와 상담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정책지원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홈페이지의 조사, 일간신문 정보 탐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110개 중 52개소에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영양교육 업무 담당자는 간호사가 55.2%, 영양사 31.4%, 보건직 공무원 10.5%, 의사 2.9%이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전담자는 간호사가 81.6%, 보건직 공무원 12.2%, 의사 5.1%, 영양사 1.0%이었다.
2. 현재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90.8%이었다. 임신부가 처음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시기는 37.1%가 임신 전반기, 48.5%가 임신 후반기였다. 임신부만이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우는 75.8%, 임신부와 남편이 함께 받은 경우는 8.1%, 임신부, 남편, 가족을 교육하는 경우는 16.2%이었다. 모유수유 교육은 임신부 교육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6회 임신부 교육 중 모유수유

교육은 1.2번 정도 시행되고 있었다.

3. 모유수유 교육의 내용은 모유수유의 이점 12.4%, 모유수유 방법 12.2%, 출산 전 유방관리 11.5%,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11.0%, 출산 후 유방관리 10.0%,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관리 9.9%, 모유수유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 9.5%, 직장여성을 위한 모유수유 방법 9.9%, 모유수유 성공자의 경험담 4.9%,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방법 4.6%,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지지망 구성 방법 4.1%이었다.
4. 모유수유 교육방법은 개별 상담이 35.0%, 책자 제공이 31.1%, 강의 20.9%, 인터넷 사이트 정보 제공이 13.0%이었다. 강의를 할 경우 31.3%가 외부강사를 초빙하였고, 외부강사는 국제모유수유 전문가가 37.6%, 간호학 교수 27.3%, 의학 교수 20.7%, 간호사나 조산사 10.3%, 영양학 교수 3.4%이었다. 강의 시 사용하는 교재교구는 리플릿 등 프린트물 28.2%, 소책자 27.5%, 비디오나 CD 21.5%, OHP나 파워포인트 12.1%, 모형인형과 모형유방 사용 10.7% 순이었다.
5. 보건소 중 63.6%가 수유부를 위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50.8%, 개별 상담 33.9%, 가정방문 15.3%이었다.
6. 우리나라의 산전산후 휴가는 총 90일이며, 이 중에서 산후 45일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급여는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수유시간은 1년 미만의 유아를 보살피는 시간으로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담당자,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개

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제도는 확립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수유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